

## 2006년도 수입 닭고기 시장전망

2005년 12월, 대다수의 닭고기 무역 업체들은 크게 위축되었다. 2004년과 2005년, 적정량의 덴마크산 고급 닭고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으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수입물량은 크게 초과하며 덤핑판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 주요 이슈로 등장한 조류인플루엔자(AI) 뉴스를 통해 소비는 급감하게 되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AI의 경우 감염자는 140명을 넘어섰고, 이중 사망자는 이미 70명을 초과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I 확산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AI는 유럽과 러시아를 거쳐 중국의 동부까지 진행됐으며 올 1월과 2월 중반까지를 고비로 북한과 한국에 전염될 확률이 사실상 높아졌다. 또 잠잠했던 유럽에서 또 다시 AI가 재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에서 철저히 검역시스템을 작동한다면, 이웃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나라에서 바람으로 실려 보내면 어쩔 수 없는 법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2006년의 경우 1/4분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이 크게 정리되며, 수익력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 1. 한국의 무역업체들의 인수·합병

현재 대다수의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고, 4/4분기에 들어와서 도계장을 비롯하여 대형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있다. 채권관계로 주변업체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의 자본 영세성과 유동자금 부족으로 어음거래가 많아졌으며, 수도권에 있는 업체와 영남에 있는 업체가 폐업되면서 그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채권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큰 고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도미노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대다수 수입업체들의 재고들을 살펴보면, 시장성 있는 상품이기보다는 악성재고라고 할 수 있다.

1차 생물시장의 성격상 규모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미국의 경우 2002년 가격 폭락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사라졌으며, 반대로 몇몇 회사들은 보다 대형화가 되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인수·합병을 위한 대형 가금육 업체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 2. 브라질 상품의 보편화

일본에서 브라질 가금육의 신뢰도는 미국산 가금육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2005년 브라질은 한국의 가금육 시장을 이해했고 품질테스트를 끝마쳤으며, 한국사람이 선호하는 이른바 '코리안 스펙'을 체험했다.

닭고기의 중요 수입 국가는 미국을 대신하여 브라질이 될 것이다. 브라질에서 부산항까지 선적 기간은 짧게는 45일, 길게는 약 두 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장예측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월 선적가격과는 달리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가격 또한 떨어질 확률이 높다.

## 3. 중국산 가공품의 성장기 시장 진입

중국에서 수입된 '스팀 꼬치'가 시장에 정착되었으며, 무역업체들이 태국과 중국의 업체들과 협력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원료육을 수입해 뼈를 발골한 정육작업을 통해 '닭꼬치'를 생산했으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가의 '스팀 꼬치'의 확산으로 수입육의 주요 상품 군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반 매장에서 원료육 닭꼬치의 경우는 제품을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한 반면, 스팀 꼬치는 데운 후 양념만 발라주면 되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 크게 선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냄새가 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제는 소비자들이 크게 거론하지 않는 것 같다.

## 4. 고품질 닭고기의 정착화

작년 닭고기 품귀현상을 통해 정말이지 다양한 국가와 상품 군들이 수입되었다. 고품질의 덴마크산 ROSE 닭고기의 경우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국내 닭고기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한

반면, 프랑스산 사각(Leg Quarters)과 저품질의 영국산 통날개(Three Joint Wings) 닭고기가 유통되면서 전반적인 시장규모 축소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2005년 또한 저품질의 미국산 닭고기를 수입하면서 대다수 업체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했고, 특히 넓적다리(Bone In Thigh)의 경우는 도저히 닭고기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었으며, Peco나 Case Farm의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 수율이 4~5% 정도 감소된 저품질이 수입되었다.

2006년에는 대다수 업체들이 품질이 보장된 닭고기를 수입하려는 양상이다. 미국산 수입은 가급적 자제하며 공인된 브랜드만 거래하고, 국내산 프랜차이즈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덴마크산 가금육을 비롯하여 브라질산을 주로 거래할 것 같다. 이를 통해 저품질의 닭고기는 2005년과는 크게 다르게 한국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5. AI 발생과 국제가격의 변화

2006년 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3~5% 정도 증가될 것이며, 브라질과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국가에 닭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나, 질병발생여부에 따라 수출시장의 규모가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예년과 다름없이 닭고기를 소비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닭고기 수입은 물론 자국 내에서 극심한 소비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가격과는 전혀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우리가 취급하는 닭고기는 본질이 생물이 아니라 가격이 낮다고 많이 먹을 수 없고, 가격이 또 한 높다고 안먹을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무역업체에서는 협회구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기존 업체들 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우리는 매년 미국의 대형 패커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아까운 달러를 낭비해 왔다. 각각의 회사가 분노하고 울분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지라 참고만 지내왔다.

2006년, 우리는 더욱더 많은 수입산 닭고기를 보게 될 것이다. 브라질, 미국, 태국, 중국, 덴마크산이 그것이다. 각 무역업체들의 절제력과 신중함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